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이설빈 (이엠에스, 경영학 박사)*

국 문 요 약

벤처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창업자 역량’, ‘차별화 전략’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란 측면에서창업행동이 중요성을 갖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중소·벤처경영기업 100개사 CEO를 대상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창업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정신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혁신성과 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에서의 창업가정신에서는 창업자의 역량과 혁신성에서는 긍정적 창업동기, 기술성에서는 창조적 기술 활용이 경제성에는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창업에서 가장 요구돼왔던 창업자의 기업이 정신이 벤처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임을 실증해 주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정신으로서의 창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독자적 기술역량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때 지속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벤처창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가정신, 창업자역량,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

1. 서 론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사회·경제적으로 봉착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 창업 기반의 창조경제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창조경제 실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모태펀드 설립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창업환경에서도 세계 17위에 올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창업기업을 위한 엔젤투자가 부족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다 (창업진흥원, 2016).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새로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낸 것도 중소벤처창업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대비 2015년 현재, 총 취업자 수는 150만 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대기업

이 23만 명(15%), 중소벤처기업이 127만 명(85%)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1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하면 평균 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의 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8.7%로 일반 중소기업의 2.6%보다 크게 높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벤처창업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벤처창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창업진흥원, 2016).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국가 미국 (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영국의 동북부지역을 ‘테크시티’로 명명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1300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을 창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테크시티와 같은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테크 네이션’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베이징 중관촌, 선전 등에 창업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베를린도 새롭게 유럽과 독일의 창업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김형철, 2009).

이와 같이 벤처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

* 주저자, 이엠에스 대표, 경영학 박사, emslsb@gmail.com

· 투고일: 2017-04-17 · 수정일: 2017-06-07 · 게재확정일: 2017-06-27

고 있고,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창업가 역량’, ‘차별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란 측면에서 창업행동이 중요성을 갖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김중관, 1994; 김형철, 2009; 박상용·김연정, 2004; 윤보현·박준병, 2007).

그동안 벤처창업가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Vesper(1994)는 벤처창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성공적인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보았으며, 창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영학의 아버지 Drucker(1985)도 ‘벤처창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기회로 활용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벤처 창업가에게는 이윤의 극대화 보다 ‘기회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벤처창업가에게 있어서 기회 발견과 기회의 활용이라고 하는 벤처창업의 성공요인은 매우 중시 된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벤처창업가의 특성, 벤처창업가의 역량, 벤처창업가 정신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치중 되어 왔다. 특히 이들 벤처 창업가의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는 창업가의 정신과 혁신 외에 벤처고유의 독자적 기술성과 경제적 자원의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될 때 기존 창업에 비례한 벤처 창업의 기술성과 재무적 관점에서의 재정 지원의 선행에 따라 가치 증대와 성공 확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벤처 창업을 창업가 정신과 혁신성 만을 최우선시 하면서 실제 창업자의 5년후 생존율이 30%대의 낮은 성공과 자립율을 보여 온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제한적 변수의 사용으로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김형철, 2009; 박상용·김연정, 2004; 이장우,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보다 근원적인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벤처창업경영자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한 벤처창업 성공요인과 중요도의 도출을 통해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는데 본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벤처 창업은 ‘특정 기술과 특허 등을 바탕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를 통해 모험적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시화, 2008).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사업기회를 받

건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체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창조하는 경영목적과 계획 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으로서의 모험적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집, 2014; 김상순 외, 2012).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창업 성공 요인으로 McClelland(1967)는 성취욕구 모험성향, 목표지향성,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 수용력 등이 벤처창업가의 고유한 성공을 지향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벤처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던 변수 또한 성취욕구, 내적통제, 위험감수성, 자기유능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심리상태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조직차원에서의 창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이 창업가 정신의 핵심 요인으로 수렴되기도 했다.

이 같은 벤처창업이 지속적으로 생존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창업가 정신’, ‘혁신성’ 이외 본원적으로 기술성과 경제성이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데 이들 하위요인을 보다 세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의 창업정신으로 이는 기회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접근방법이며, 행동과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경영학의 중요한 독자영역으로 발전 해왔다. 기업가의 창업정신은 학문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오영미·박성환, 2014). 기업가의 창업정신과 관련된 대표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를 들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그는 혁신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신제품 개발(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생산량을 늘리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생산방법 개발), 신 시장 개척(자신의 나라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본인의 판매영역을 확대),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보다 나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원료나 부품을 사용), 새로운 조직의 형성(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노동생산성 향상(임금인상, 휴가 등 물질·정신적으로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을 꼽았는데, 이 6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슈페터가 정의하는 창업자의 성공요인은 대체로 이들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면 Boyatzis(1982)는 역량을 동인, 특성, 기술, 자기이미지의 양상 또는 사회적 역할, 또는 일련의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초 특성이란 역량이 개인성격의 지속적이고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상황 및 직무과업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역량이 행동 및 경영성적을 유발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에 근거한다는 것은 역량이 구체적인 기준 또는 표준에서 측정됨으로써 실제 누가 무언가를 잘 행하는지 그렇지 못

한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비록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량을 개념화하는데 핵심 부분으로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의 성공 및 뛰어난 경영 성과와 관련된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김형철, 2009).

둘째, 혁신성으로 Schumpeter(1934)는 혁신성 (Innovativeness)을 ‘상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물적 요소와 힘을 새로이 결합하는 ‘新결합’이라 보고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Schumpeter는 혁신의 구체적인 예로서 첫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둘째, 생산방식의 도입, 셋째, 신시장의 개척, 넷째,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획득, 다섯째, 새로운 조직의 출현을 들고 있고, 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실현된다고 봤다. 이러한 혁신성은 현재의 기업 환경과 매우 잘 들어맞는 이론이며,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윤백중, 2012).

Drucker(1985)는 혁신을 창업가의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Covin & Slevin(1990)은 혁신성을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활동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창업에 있어 성공과 지속성장을 위해 특히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CEO의 경우 뛰어난 사고력과 혁신적 경영을 위해 창업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이윤원천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개인 기업가와 조직까지 포함하며(노형진, 2012), 지속적인 신기술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투자활동과 이를 통한 혁신은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강순빈, 2012).

셋째, 기술성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기본 도구이다. 창업자는 그것을 통해 사업 기술을 포착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 상황적 변화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조짐과 패턴을 인식하는 데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선형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귀납적으로, 연상적으로 또는 직관력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즉, 남보다 앞서 특정한 부문이나 시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혀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노하우로 연결시킴으로써 좋은 사업 기술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창업자의 기술에 있어 기술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즉 차별적 기술의 선행변수인 특히 기능 및 지식 등을 포함한다.

사업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의 매력도가 높아야 하고, 수익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으로 벤처창업에서 가장 중시되는 운영자금에 대한 확보는 성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현재 벤처창업에 있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용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과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출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의 창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는 손쉽게 이루어지기 힘들며, 창업 후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엔젤투자 지원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근 단순히 재무적인 투자자에서 적극적인 창업보육 기능을 결합한 “창업 액셀러레이터 (Start-up Accelerato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 액셀러레이터는 엔젤투자자와 같이 지분투자 방식의 수익모델로 창업이 성공해야만 수익을 얻는 구조이며 기존 지원방식과 차별화된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입주공간을 지원하면서 보육프로그램도 일부분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 R&D 등의 기능은 없으며,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는 주로 투자자금을 지원하되 입주, R&D, 보육프로그램 등은 운영하지 않는다. 반면에 창업 액셀러레이터나 기술인큐베이터의 경우, 투자, 공간제공, R&D, 전문 보육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특징을 갖듯이 벤처창업에서의 경제적 자금 준비는 곧 성공요인과 직결된다.

III. 연구 방법

3.1 AHP 분석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벤처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벤처 창업자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표1>과 같은 구조도를 작성하였다. 구조도의 작성은 관련 문헌검토와 현재 벤처창업을 경영하고 있는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계층분석방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1970년대 초에 Saaty교수에 의해 개발된 다요인 의사결정기법으로 다수의 평가기준을 계층화한 후 계층별로 중요도를 정해가는 기법으로 주로 대안의 우선순위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된다. AHP분석은 각 문항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항목들의 중요도를 계층구조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 시 전문가의 경험이나 직관등이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기준은 물론 정성적 평가기준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근태 외, 2003)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벤처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성공 우선순위 모형은 두 계층으로 구성하였는데 상위요소인 벤처창업 성공요인은 창업가정신,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 요인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소로는 이들 상위요인별로 각 5개의 항목을 배정하여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유형별 하위내용

벤처창업 성공요인			
창업가정신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
①창업자태양 ②모험성향 ③성취욕구 ④목표지향성 ⑤유형감수성	①긍정적 창업동기 ②진취적사고 ③시장지향적 기회전환 ④아이디어 사업화 ⑤자기개발	①창조적 기술활용 ②기술지식과 장인 정신 ③지적재산권 보유 ④시장지향적 기술력 ⑤첨단기술 국제화	①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②벤처캐피탈 활용 ③벤처펀드 조성 ④가용자본 조성 ⑤재무적 지원 보유

3.2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상기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검토를 한 후에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중소·벤처 기업으로 벤처창업기업 중 5년 이상 경과한 IT, BT업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창업협회 등록된 서울 지역 소재 벤처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CEO의 대다수 기업이 창업 5년에서 10년 이내에 가장 많았으며 CEO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험 성향과 성취 욕구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AHP 분석에서는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시 나타나는 약점인 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검증을 실시하였다. 일관성 비율 검증에서는 AHP응답자의 논리적인 모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거하였다. 일관성 비율 (CR)값이 0.1을 상회할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결정요인별 벤처창업가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AHP모형은 의사결정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모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설문 대상	직접 벤처창업에 참여한 경영자
설문 기간	2017. 3. 2. ~ 2017. 3. 10
설문 방법	직접 방문 면접
설문 부수	총 100부 배부
설문 내용	벤처경영 성공요인

3.3 쌍대비교 행렬의 구성

AHP의 쌍대비교행렬 구성은 상위계층 요소들의 목표에 공헌하는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한 것이다. 쌍대비교를 통해 상위요소에 기여정도를 9점 척도의 중요도로 부여하며, 직계 하위의 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n(n-1)/2회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박경열, 2007). AHP에서 평가한 자료는 계층 내의 요소들 간에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한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사용하고, 계량적인 판단수행을 위해 신뢰할만한 척도가 필요한데 이때 아래의 <표 3>과 같이 쌍대비교를 통한 9점 척도가 많이 사용된다(조근태 외, 2003).

<표 3> 쌍대비교의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비슷함 (Equal importance)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함 (Moderat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함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중요함 (Very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중요함 (Extrem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강하게 선호됨
2,4,6,8	위 값들의 중간 값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비교 값이 위 값들의 중간 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값	활동 i가 j에 대하여 위의 특정 값을 갖는다고 할 때, 활동 j는 활동 i에 대하여 그 특정 값의 역수를 갖는다.	
1.1~1.9	동등한 활동 (For tied activities)	비교요소가 매우 비슷하게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값으로서: 약간 동등은 1.3,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1.9를 사용함

3.3.1 1차 개방형 설문지 구성 및 조사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얻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벤처창업 경영자의 성공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설문문항 개발을 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였다(김병욱, 2015). 즉, 벤처창업 CEO를 대상으로 창업가 정신,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 요인의 4개 성공 요인과 각 하위 요인 5가지씩 총 20개 항목을 설문지 내 제시하고 <그림 1>과 같이 하위 중요도에 따라 개별 1-9점 척도를 이용한 문항씩 선택 체크해 나가도록 설명 후 동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3.2 2차 중요도 인식 설문지 조사

1차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된 벤처경영 성공요인에 대하여 범주화 과정 및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인식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3.3.3 3차 계층화분석(AHP) 중요도 설문지 조사

2차 인식 중요도 설문지를 기초로 3차 AHP 설문지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벤처창업성공 요인의 우선

순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 AHP 설문 문항구성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진행은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차 개방형 설문지, 2차 인식중요도 질문지, 3차 우선순위 설문지를 직접방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4.2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3과 계층분석 프로그램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설문응답의 일관성 비율 (CR)은 0.1 이하로 설정하여 각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 값을 통해 쌍대비교하여 벤처창업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4.1 벤처·창업 성공 중요요인

4.1.1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탐색된 벤처·창업 중요요인

본 연구의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창업가정신’,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개방형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표 4>와 같이 탐색 결과를 나타냈다.

<표 4>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탐색된 중요요인

성공 중요요인	세 부 내용
창업가 정신	창업자 역량, 모험성향, 성취욕구, 목표지향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긍정적 창업동기, 진취적 사고, 자기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시장 지향적 기회전환
기술성	창조적 기술 활용, 기술 지식과 장인정신, 지적재산권 보유, 시장 지향적 기술력, 첨단기술의 국제화
경제성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벤처캐피탈 활용, 벤처 펀드 조성, 가용자본 안정적 조성, 재무적 자원 보유

4.1.2 벤처·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벤처·창업 성공 요인 중 1차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세부요인들의 구체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2, 3차 계층분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3차 설문에서 수집된 정보는 벤처·창업자 정신 5개 요인, 벤처·창업의 혁신성 5개 요인, 벤처·창업의 기술성 5개 요인, 벤처·창업의 경제성 5개 요인 으로서 총 20개의 항목이 아래 <표 5>와 같이 추출되었다.

<표 5> 2, 3차 계층분석 세부요인 추출 결과

상위요인	세부요인	요인수
창업가 정신	창업자 역량	5
	모험성향	
	성취욕구	
	목표지향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긍정적 창업동기	5
	진취적 사고	
	자기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성	시장 지향적 기회전환	5
	창조적 기술 활용	
	기술 지식과 장인 정신	
	지적재산권 보유	
	시장 지향적 기술력	
경제성	첨단 기술 국제화	5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벤처캐피탈 활용	
	벤처 펀드 조성	
	가용 자본 안정적 조성	
합계		20

4.1.3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4.1.3.1 상위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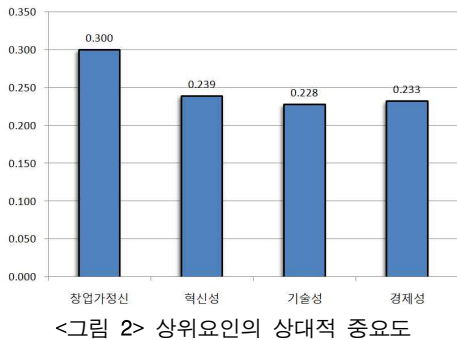
벤처·창업 성공 요인들을 AHP를 이용하여 대분류에 대한 창업가 정신요인, 혁신성 요인, 기술성 요인, 경제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 계층	2 계층	우선순위
벤처 창업 성공요인	Factor 1. 창업가 정신 (.300)	1
	Factor 2. 혁신성 (.239)	2
	Factor 4. 경제성 (.233)	3
	Factor 3. 기술성 (.228)	4
C.I = .0037, R.I = .9, C.R = .0041		

분석결과 벤처·창업 성공요인 중 ‘창업가 정신’이 3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혁신성’ 23.9%, ‘경제성’ 23.3%, ‘기술성’ 22.8%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일관성 지수 C.I는 .0037로 일관성 비율 C.R .0041로 나

타나 응답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4.1.3.2 상위요인에 따른 세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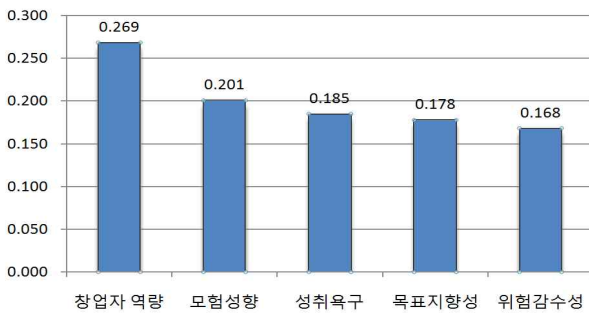
4.1.3.2.1 창업가 정신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표 7>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계층	3 계층	우선순위
창업가 정신	Factor 1. 창업자 역량 (.269)	1
	Factor 2. 모험성향 (.201)	2
	Factor 3. 성취욕구 (.185)	3
	Factor 4. 목표 지향성 (.178)	4
	Factor 5. 위험 감수성 (.168)	5

C.I = .0034 , R.I = 1.12 , C.R = .0030

분석결과 창업가 정신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이 26.9%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험성향’ 20.1%, ‘성취욕구’ 18.5%, ‘목표 지향성’ 17.8% 위험 감수성이 16.8%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일관성 지수 C.I는 .0034로 일관성 비율 C.R .003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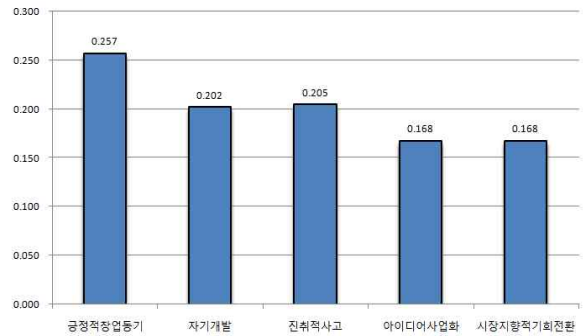
4.1.3.2.2 혁신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표 8>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계층	3 계층	우선순위
혁신성	Factor 1. 긍정적 창업동기 (.257)	1
	Factor 3. 자기개발 (.205)	2
	Factor 2. 진취적 사고 (.202)	3
	Factor 4. 아이디어 사업화 (.168)	4
	Factor 5. 시장 지향적 기회전환 (.168)	5

C.I = .0079 , R.I = 1.12 , C.R = .0070

분석결과 혁신성 중 ‘긍정적 창업동기’이 25.7%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개발’ 20.5%, ‘진취적 사고’ 20.2%, ‘아이디어 사업화’ 16.78% ‘시장 지향적 기회전환’이 16.76% 4, 5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지만 크지 않은 격차를 나타냈다. 일관성 지수 C.I는 .0079로 일관성 비율 C.R .007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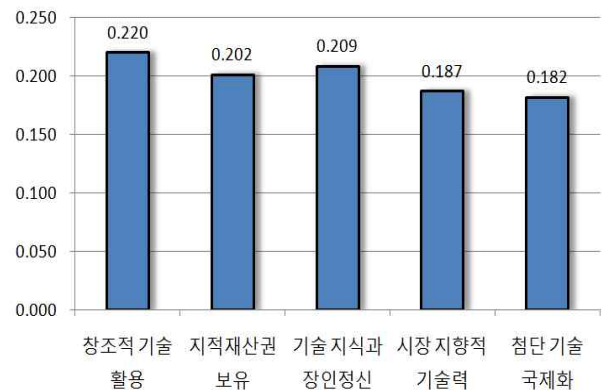
4.1.3.2.3 기술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표 9>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계층	3 계층	우선순위
기술성	Factor 1. 창조적 기술 활용 (.220)	1
	Factor 3. 지적재산권 보유 (.209)	2
	Factor 2. 기술 지식과 장인정신 (.202)	3
	Factor 4. 시장 지향적 기술력 (.187)	4
	Factor 5. 첨단 기술 국제화 (.182)	5

C.I = .0027 , R.I = 1.12 , C.R = .0024

분석결과 기술성 중 ‘창조적 기술 활용’이 22.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보유’ 20.9%, ‘기술 지식과 장인정신’ 20.2%, ‘시장 지향적 기술력’ 18.7% ‘첨단 기술 국제화’ 18.2%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일관성 지수 C.I는 .0027로 일관성 비율 C.R .0024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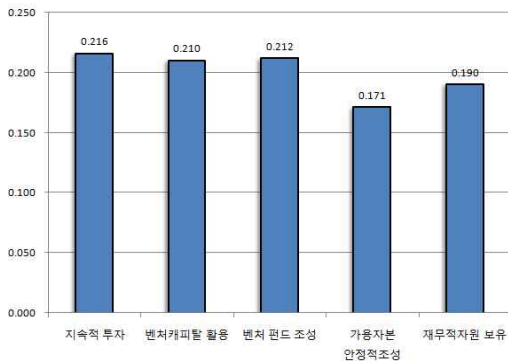


4.1.3.2.4 경제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표 10> 상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계층	3 계층	우선순위
경제성	Factor 1.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216)	1
	Factor 3. 벤처 펀드 조성 (.212)	2
	Factor 2. 벤처캐피탈 활용 (.210)	3
	Factor 5. 재무적 자원 보유 (.190)	4
	Factor 4. 가용 자본 안정적 조성 (.171)	5
C.I = .0020 , R.I = 1.12 , C.R = .0018		

분석결과 기술성 중 ‘기술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요인이 21.6%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벤처 펀드 조성’ 21.2%, ‘벤처 캐피탈 이용’ 21.0%, ‘재무적 자원 보유’ 19.0% ‘가용 자본 안정적 조성’ 17.1%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일관성 지수 C.I는 .0020로 일관성 비율 C.R .0018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경제성의 세부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4.4 벤처 창업자의 기초배경별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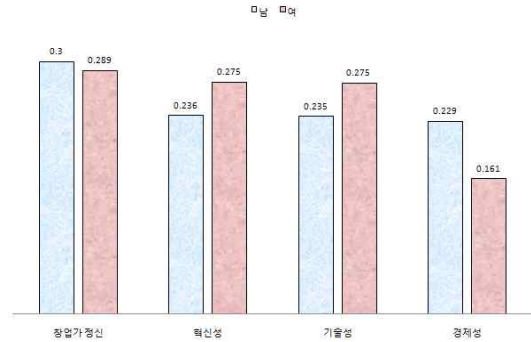
4.4.1 성별에 따른 중요도와 우선순위

<표 11> 성별에 따른 중요도와 우선순위

1 계층	2 계층			
	남 성	우선순위	여 성	우선순위
벤처 창업 성공요인	Factor 1. 창업가 정신 (.300)	1	Factor 1. 창업가 정신 (.289)	1
	Factor 2. 혁신성 (.236)	2	Factor 4. 경제성 (.275)	2
	Factor 3. 기술성 (.235)	3	Factor 2. 혁신성 (.275)	3
	Factor 4. 경제성 (.229)	4	Factor 3. 기술성 (.161)	4
C.I = .0046 , C.R = .0051		C.I = .0034 , C.R = .0038		

위의 <표 11>은 성별에 따른 벤처 창업 성공요인의 상위 대분류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벤처 창업 성공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창업가 정신’ 30.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 23.6% 2순위로 기술성 23.5%, 경제성 22.9%로 그 뒤를 이어갔다. 여성 창업자의 경우 1순위 ‘창업가 정신’ 28.9%로 남성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경제성이 27.5%, 혁신성 27.49%로, 기술성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창업자와 다르게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음을 알 수 가 있다. 두 그룹모두 C.R 값은 판단 기준치 0.1 이하의 수준으로 (남성: C.R = .0051, 여성: C.R = .0038) 응답자 모두 일관성 있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벤처창업자의 성별 간 성공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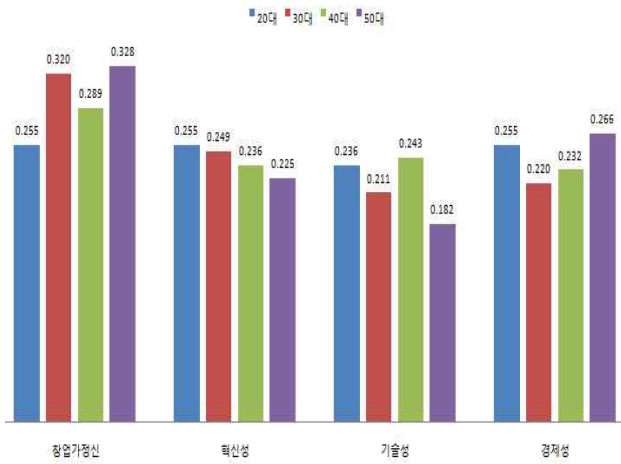
4.4.2 연령대 따른 벤처 창업 성공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표 12> 연령대 따른 벤처 창업 성공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 계층	우선 순위	2 계층			
		20대	30대	40대	50대
벤처-창업 성공요인	1	Factor 1. 창업가 정신 (.255)	Factor 1. 창업가 정신 (.320)	Factor 1. 창업가 정신 (.289)	Factor 1. 창업가 정신 (.328)
	2	Factor 2. 혁신성 (.255)	Factor 2. 혁신성 (.249)	Factor 3. 기술성 (.243)	Factor 4. 경제성 (.266)
	3	Factor 4. 기술성 (.255)	Factor 4. 경제성 (.220)	Factor 2. 혁신성 (.236)	Factor 2. 혁신성 (.225)
	4	Factor 3. 경제성 (.236)	Factor 3. 기술성 (.211)	Factor 4. 경제성 (.232)	Factor 3. 기술성 (.182)
C.I = .0079 C.R = .0088		C.I = .0016 C.R = .0018	C.I = .0024 C.R = .0027	C.I = .0030 C.R = .0033	

<표 12>는 벤처 창업 성공요인 가운데 연령대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 별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층 모두 벤처 창업 성공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창업가 정신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어 요소별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1순위 창업가 정신에 이어 혁신성 24.9% 경제성 22.0% 기술성 21.1% 순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보여주었으며, 40대의 경우 기술성 24.3% 혁신성 23.6% 경제성 23.2%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50대의 경우 2순위로 경

제성 26.6%을 중요도 및 우선순위로 두고, 혁신성 22.5% 기술성 18.2% 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연령대별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응답자들 모두 일관성 있는 설문 응답을 보여주었다.



<그림 8> 연령대별 벤처창업자의 성공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그래프

V. 결론

본 연구는 벤처창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중소 벤처경영기업 100개사 CEO를 대상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 벤처·창업 성공 요인들을 AHP를 이용하여 대분류에 대한 창업가 정신요인, 혁신성 요인, 기술성 요인, 경제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벤처 창업 성공요인 중 ‘창업가 정신’이 3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혁신성’ 23.9%, ‘경제성’ 23.3%, ‘기술성’ 22.8%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둘째, 창업가 정신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 분석결과 창업가 정신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이 26.9%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험성향’ 20.1%, ‘성취욕구’ 18.5%, ‘목표 지향성’ 17.8% 위험 감수성이 16.8%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셋째, 혁신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혁신성 중 ‘긍정적 창업동기’이 25.7%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개발’ 20.5%, ‘진취적 사고’ 20.2%, ‘아이디어 사업화’ 16.78% ‘시장 지향적 기회전환’이 16.76% 4, 5순위로 중요도를 나타냈지만 크지 않은 격차를 나타냈다.

넷째, 기술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 분석결과 기술성 중 ‘창조적 기술 활용’이 22.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보유’ 20.9%, ‘기술 지식과 장인정신’ 20.2%, ‘시장 지향적 기술력’

18.7% ‘첨단 기술 국제화’ 18.2%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경제성의 세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 분석결과 기술성 중 ‘기술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요인이 21.6%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벤처 펀드 조성’ 21.2%, ‘벤처 캐피탈 이용’ 21.0%, ‘재무적 자원 보유’ 19.0% ‘가용 자본 안정적 조성’ 17.1%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여섯째, 성별에 따른 벤처 창업 성공요인의 상위 대분류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의 벤처 창업 성공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창업가 정신’ 30.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 23.6% 2순위로 기술성 23.5%, 경제성 22.9%로 그 뒤를 이어갔다. 여성 창업자의 경우 1순위 ‘창업가 정신’ 28.9%로 남성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이 27.5%, 혁신성 27.49%로, 기술성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창업자와 다르게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음을 알 수 가 있다.

일곱째, 벤처 창업 성공요인 가운데 연령대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 별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층 모두 벤처 창업 성공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창업가 정신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어 요소별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1순위 창업가 정신에 이어 혁신성 24.9% 경제성 22.0% 기술성 21.1% 순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으며, 40대의 경우 기술성 24.3% 혁신성 23.6% 경제성 23.2%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50대의 경우 2순위로 경제성 26.6%을 중요도 및 우선순위로 두고, 혁신성 22.5% 기술성 18.2% 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벤처창업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정신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혁신성과 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요인에서의 창업가정신에서는 창업자의 역량과 혁신성에서는 긍정적인 창업동기 기술성에서는 창조적 기술 활용이 경제성에서는 기술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창업에서 가장 요구돼왔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벤처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임을 실증해 주었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정신으로서의 창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독자적 기술역량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때 지속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벤처창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대비시켜보면 Covin & Slevin(1990)은 창업가의 고유특성인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제시한 창업가 특성 연구에서 창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이들 요인은 창업 특성을 지지해주는 성공요인으로 기업성과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본연구의 유용성을 지지해 주었다. 특히 벤처창업에서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은 지속적인 신기술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투자활동과 이를 통한 혁신이 뒷받침 될 때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 창업을 위해 CEO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창업자의 역량과 강한 성취욕구 및 진취성 (Proactiveness)을 가지고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강한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Lumpkin & Dess, 1996).

둘째,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김중관, 1994)을 가질 때, 벤처 창업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이춘우, 1999)이 뒷받침 될 수 있다. 셋째, Covin & Slevin(1990)제시한 위험감수성의 지지에서 서도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가 더 많은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듯이 위험을 해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 성공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은 Dess et al.(1999)이 주장한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배가될 때 벤처창업의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결과적으로 벤처창업 성공요인이 일반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성 이외에 벤처창업고유의 독자적 기술경쟁력과 벤처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까지 뒷받침 될 때 비로써 벤처창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이를 수 있음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벤처창업성공 요인의 중요한 점을 찾고 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기초배경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만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통해 개선방안 이외에 업종별, 자본 규모별, CEO의 매출규모에 따른 특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후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

강순빈(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 준비가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기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욱(2015). 의사결정계층(AHP) 분석 방법. 서울: 김스정보전략 연구소.
 김상순·김중원·양영석(2012).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67-175.
 김용집(2014).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근 3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관(1994). 경영조직에서의 기업가 정신과 그 영향요인 및 성과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형진(2012). 제조기업의 핵심역량 및 가치혁신전략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7(4), 155-167.
 박경열(2007). AHP에 의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평가기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9(2), 71-92.
 박상용·김연경(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구성원의 임과 워먼트와 벤처 조직유효성의 상호관계.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7(3), 3-31.
 오영미·박성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설립연구*, 14(2), 199-221.
 윤백중(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보현·박준병(2007).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구자관계분석. *벤처창업연구*, 2(3), 145-168.
 이시화(2008). 한국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국책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장우(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59-92.
 이춘우(1999). 조직안티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근태·조용근·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창업진흥원(2016). *벤처 창업 정책 성과 점검 실태 조사*. 대전: 창업진흥원.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Dess, G. G., Lumpkin, G. T., & McKee, J. E.(1999). Linki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to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Suggested research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3), 85-85.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s and Principles*. AMACON.
 Jo, K. T., Jo, Y. K., & Kang H. S.(2003).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of Proceeding Leaders*. Seoul: Donghyun Publisher.
 Kang, S. B.(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and Advances Prepara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ed 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at Chungang University.
 Kim, B. W.(2015).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Seoul: Kimsinfo Company, 17-56.
 Kim, H. C.(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at Chosun University.
 Kim, J. K.(1994). *The Relationships with Entrepreneurship, Its Factor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Business*

- Organization*.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 S., Kim J. W., & Yang Y. S.(2012).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nd its impact on entrepreneurship and the creation of a resear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67-175.
- Kim, Y. J.(2014). *The Research of the Relation between Business Foundation Policies and Employment Rat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at Chungang University.
- Korean Institute of Startups and Management(2016). *A Study on the Performance Examination of Venture Entrepreneurship Policies*. Dae-Jeon: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7-35.
- Lee, C. W.(1999). *A Study on the Role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 W.(200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High-Tech Ventures Across Stages of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Management*, 9(2), 59-92.
- Lee, S. H.(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ed on the National Polic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Progra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t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cClelland, D. C.(1967). *Achieving Society*. Simon and Schuster.
- Oh, Y. M., & Park, S. H.(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4(2), 199-221.
- Park, K. Y.(2007).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Priority of Mega Sports Events by AHP.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2), 71-92.
- Park, S. Y., & Kim, Y. J.(2004). Relationships among CEO's Entrepreneurship, Empowerment on of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Korean Firm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7(3), 3-31.
- Roh, H. J.(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Core Competencies and Value Innovation Strategies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55, Transaction publishers.
- Vesper, K. H.(1994). *New venture experience*. Seattle: Vector Books.
- Yoon, B. H., & Park, J. B.(2007). Venture company executive management performance study on the impact on the relationship-researche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145-168.
- Yoon, B. J.(2012).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at Hoseo University,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tartup Success Factors in Small-Sized Venture Businesses

Seol-Bin Lee*

Abstract

With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venture startup in the national economy, a trend show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venture startup is not only strengthened, but also entrepreneurial enthusiasm is increasing. In order for this trend to continue as an ongoing phenomenon, not a temporary phenomenon, venture startups should continue to grow with survival competitiveness.

In this respect, there is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venture startups more than ever. There is a limit to seeing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entry into the growth stage with survival competitiveness for the success of venture startups, as only 'entrepreneur capacity'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claimed by existing previous studies. As a more fundamental factor, entrepreneurial behavior is important in terms of opportunity discovery and opportunity utilization, but research into this falls short of expectations.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success factors of venture startup.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empirically carried out to CEOs in 100 small and medium venture startups through AHP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stated above, entrepreneurship of success factors in venture startups is considered most critical, followed by innovation, economics, and technology. And 'entrepreneur's competency', 'positive entrepreneurial motivation', 'creative technology utilization',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are considered most critical for 'entrepreneurship', 'innovation', 'technology', and 'economics' as sub-factors, respectively. Consequently,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at has been required in general startups is a critical factor to be also in common required in venture startups.

This means that they can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venture startup along with continuous investment support in business startup with a positive mindset and their own technological competence as innovators to overcome the risk and uncertainty of business startup as entrepreneurship that marks the start of a new enterprise.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 Competency, Positive Entrepreneurial Motivation, Creative Technology Utilization, Continuous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 CEO of EMS Co.,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emslsb@gmail.com